

연변커피 트렌드 축제 인기리에 개최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연변커피 트렌드 축제가 연변대학 왕홍벽 부근에서 인기리에 개최되었다. '커피 향기 가득한 연변, 당신이 주인공'을 주제로 한 축제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커피문화의 깊이와 예술성을 탐구하는 특별한 무대로 자리잡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바리스타들은 이 행사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커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펼쳐보였다.

이번 축제는 길림성상무청에서 주관하고 연변주상무국과 연변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는데 행사장은 커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와 전문가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최고 연변주상무국과 연변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는데 행사장은 커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와 전문가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랜드 카니발'도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이 카니발은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커피, 음악, 트렌디한 놀이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완벽한 커피 맛' 창 의 제품 시장에는 30개의 특색 부스가 마련되었는데 연변 현지 커피 브랜드, 지역 특산품, 무형문화유산 관련 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참여했다.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지역 특산품을 맛보고 수공예품을 구입하면서 지역 문화의 매력에 대해 료해했다.

연변대학동아리연합회와 학교 예술단이 협력해 마련한 '감동적인 음악 라이브 공연'에서는 현대적인 트렌드와 전통 예술 융합으로 감동적인 음악 잔치를 선보였다. 커피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쳐 더욱 낭만적인 시간이 되었다.

또한 '즐거움 체험'(啡尝爱玩) '인터랙티브 워크숍'(互动工坊)도 마련되어 현장에서 조선족 민속 도자기와 전통 떡 만들기 기술을 선보였는데 관광객들은 무형문화유산 감상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느끼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 김영화기자

훈춘, 길림성 유일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기준현으로

훈춘시가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기준현에 선정되었다.

일전 전국현역관광연구과제조, 화하백강관광자문중심은 연합으로 제1기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연구 성과인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연구보고서 2025> 및 '2025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기준현'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훈춘시가 73위에 입선,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한 도시로 되었다.

2025년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연구 대상은 대륙의 1,866개 현(현급시, 자치현, 기, 자치기, 특구, 립구 포함)을 포함했다. 연구지표체계는 교통기반시설, 관광자원 흡인력, 봉



사 부대능력, 브랜드 영향력, 관리보장체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6개 1급 지표, 고속도로와 국도, 성급 도로 보

급률, 현역내 간선도로 밀도 등 35개 2급 지표로 구성되었다. 연구는 층차 분석법(AHP)과 전문가 채점을 결합

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연구 수치는 정부 공개 수치, 제3측 플랫폼 및 현지 조사연구 등 경로를 통해 획득했다. 종합득점이 앞 100위를 차지한 현을 '2025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기준현'으로 확정했다.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연구보고서 2025>는 2025년 전국 현역 자가용 관광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고 출생인원은 연 40억을 초과하여 국내 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현역 자가용 관광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복합성장률이 15%를 초과해 관광산업의 전제적인 성장동력을 크게 높였다.

/ 연변뉴스넷

백산시 훈강구 룡산호, 나들이 명소로 떠올라

아침해가 떠오르면 열은 안개가 부드럽게 걷히고 푸른 보석처럼 맑은 룡산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호수가의 능가들에는 이른아침부터 활기찬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방금 따운 두릅나물과 오갈피를 샘물에 깨끗이 씻어 큰 대야에 가득 담아놓고 압록강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잉어를 손질하여 큰 가마솥에 안치고 장작불에 천천히 익힌다.

"점심 예약이 10 여테블이나 되는데

모두 산나물과 잉어를 주문하였습니다." 바쁜 손길을 멈추지 못한 채 싱글빙글 답하는 가게 주인, 그사이 또 다른 예약 전화가 걸려온다.

푸른 산이 물에 비껴 갈증을 멈춰세우는 이곳은 바로 백산시 훈강구 삼도구진에 위치한 룡산호관광지다. 국가 3A급 관광지로 지정된 룡산호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마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산수와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공기가 맑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룡산호는 삼림피복률이 무려 96%에 이른다.

관광객들이 능가 음식을 맛보고 전원의 정취를 느끼려 실새없이 오가면서 마음은 더없이 북적거린다. 독특한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삼도구진은 산과 물을 따라 생태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특색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등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농가 레스토랑, 민박, 유람선 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삼도구진에서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능가 음식을 맛보며 전원의 정취를 체험할 수도 있다. 독특한 매력의 향토 특색과 장엄하고 아름다운 생태경관으로 인기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삼도구진은 핫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길림일보

여행 계획에서 예약까지... 우리 나라 관광업계에 부는 AI 바람

상해에 사는 류씨는 얼마전 5.1절 연휴 기간 가보고 싶었던 운남성으로 여행을 떠났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사실 여행을 위해 교통, 숙박, 필수 관광지 정보를 조사하는 일은 번거로운 과정이다.

류씨는 이번 운남 여행에서 AI 앱을 사용했다. 여행 시기, 예산, 취향 등 몇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입력하자 불과 몇분 만에 AI가 세부적인 여행 일정을 제안했다. 그는 "AI 덕분에 가장 번거로운 여행 계획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권과 호텔도 합리적인 가격에 예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딥시크(DeepSeek), 키미(Kimi), 바이텐스의 따우보(豆包) 등 AI 모델을 리용해 여행 계획을 짜고 세부 일정을 생성하는 것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인스타그램 쏘쑤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딥시크 여행 가이드' 'AI 맞춤 여행' 등 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인기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점점 더 많은 여행사와 관광지 역시 AI 중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스마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두뉴(途牛)는 AI 여행 비서 '쑤뉴(小牛)'를 출시했다. '쑤뉴'는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AI 모델을 기반으로 항공권, 호텔, 기차표 정보의 스마트 검색, 자동 가격 비교, 맞춤형 추천, 패키지 예약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뉴 최고경영자 우둔덕은 '쑤뉴'를 리용하면 AI 비서의 스마트 검색, 비교를 통해 최저가 항공권과 호텔을 10

초 안에 추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면 가장 적합한 여행 계획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두 뉴 안휘성 황산, 강서성 려산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딥시크를 도입해 서비스 승격을 추진했다. 아울러 가상 투어 가이드,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등으로 관광산업에 AI 응용 시나리오를 다원화했다.

섬서성 서안의 '대당불야성'에는 AI 기반 가상 비서 '탕쑤보(唐小宝)'가 도입돼 관광객에게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속성 돈황시의 막고굴 디지털 전시관에서는 가상현실(VR) 안경을 착용하고 석굴 내부를 관람하며 벽화들을 생성하고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관광 분야는 우리 나라 써비

스업중중 AI 도입률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국연신경제연구원 설립원장 주극력은 "현재 관광과 AI의 융합이 써비 생태계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관광 써비 분야에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써비가 여행자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도 AI의 도입으로 관광산업 가치사슬의 구조 자체가 재구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로 인한 관광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향후 3~5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AI 기술을 적극 수용해 써비 혁신을 이루는 기업이 앞으로 새로운 업계 표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우위를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신화넷

천하 제 1 관문— 산해관



만리장성은 엄청난 규모와 웅장한 기세, 유구한 력사로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다.

우리 나라의 북부를 가로지른 만리장성은 거대한 통처럼 사막과 초원을 지나고 산발을 넘어 황하와 발해 기슭까지 뻗어있다. 그중 발해의 기슭에 자리한, 연산마루 우로 솟아오른 장성과 뒤에 산을 등지고 바다를 바라오며 우뚝 서있는 웅장한 성루가 눈길을 끈다. 이 성루가 바로 '천하 제 1 관문'이라 불리는 산해관이다.

하북성 진황도시에서 동북쪽으로 15킬로미터 거리의 산해관은 동북지역에서 화북지역으로 통하는 요충지에 위치한, 명나라 만리장성중 동쪽의 중요한 관문이다.

1381년 명왕조는 동북 여진족의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대장군 서달을 파견해 산해관을 수비하고 관문을 축조하게 했다. 이곳은 산과 바다가 하나로 연결된 관문이라고 해서 이름이 산해관이다.

외벽을 벽돌로 쌓은 산해관 성루는 단면이 정방형이며 둘레가 4킬로미터에 달한다. 성루의 사면에는 해자가 있고 성벽은 높이 14미터, 두께 7미터이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쪽의 '진동루'만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루 양식으로 단을 높고 넓게 쌓은 진동루는 정면루, 립려루, 목영루, 위원당 등 건물들과 함께 일(一)자로 장성 위에 줄지어 호랑이 다섯마리가 관문을 지키는 자세로 '한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도 열지 못하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한다.

동문전루의 처마밑에는 명나라 시제가 소현이 쓴 '천하제 1관' 편액이 걸려있다. 한 글자의 높이가 1.6미터에 달하는데 필력이 웅건하고 힘차서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자랑한다. 또 편액의 예술적 풍격과 관문의 건축 구조가 조화를 이루어 성루는 더욱 웅장하고 수려해보인다.

과거 산해관은 군사기밀이 필히 다뤄는 요충지였다. 사람들은 산해관을 만리장성의 첫번째 관문이라 말한다. '청병관'이 말하는 그 관문도 바로 이 산해관이다.

오늘날의 산해관은 전략적 방어의 군사기능이 아닌 력사와 문화를 함유한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600여년의 풍상고초를 겪었지만 산해관 성루의 안팎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거리와 많은 고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랑쪽에 단아한 모양을 자랑하는

건물, 온갖 화초로 조각된 가람벽의 건물이 즐비한 좁은 골목을 걷노라면 웅장한 산해관의 모든 것은 또 그토록 소박하면서도 자연스럽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산해관 성루에 올라서서 북쪽을 바라보면 만리장성이 머리를 건듯 들고 구불구불 못산발을 달리는 듯 장관이다. 다시 머리를 돌려 남쪽을 바라보면 뚝이 바다에 머리를 박은 듯 장성이 바다 속 깊이 뻗어있는데 이름하여 '로룡두'이다.

산해관 성루에서 남쪽으로 5킬로미터 거리의 바다가 바위에 조성된 로룡두는 반도 모양의 바위에서 바다 깊숙이 뻗어있다. 만리장성중 유일하게 바다와 연결된 이 구간의 장성은 연해의 바위를 따라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간 입해석성과 해신묘, 정로대, 남해구, 징해루, 녕해성, 해변의 장성 등 일곱부분으로 구성된 로룡두는 명실공히 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군사요새이다. 로룡두에 올라 저 멀리 바라보면 파도가 세차고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져 장관을 이룬다.

산해관 성루에서 동쪽으로 6킬로미터, 두께 7미터이다. 원래는 4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동쪽의 '진동루'만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루 양식으로 단을 높고 넓게 쌓은 진동루는 정면루, 립려루, 목영루, 위원당 등 건물들과 함께 일(一)자로 장성 위에 줄지어 호랑이 다섯마리가 관문을 지키는 자세로 '한명이 관문을 지키면 만명도 열지 못하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한다.

사당의 앞쪽 전각에는 소복을 입고 얼굴에 수심을 띠고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맹강녀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사당 앞에 산세를 따라 조성된 108개의 계단은 남편을 찾기까지 맹강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천년이 넘는 동안 맹강녀가 통곡으로 만리장성을 무너뜨렸다는 전설을 내용으로 하는 시와 연극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며 만리장성의 관문에 신비로움과 슬픈 색채를 가미한다.

이 밖에 산해관에서는 각산 등정 축제와 장수산 가을 축제, 봄날의 담청 축제, 맹강녀묘 회회 등 전통 행사를 가지며 '중국 산해관 국제 장성 축제', 로룡두 바다 축제, 장성의 봄 음악회 등 행사도 펼쳐지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끈다.

/ 국제방송

